

ORIENTAL
EXPRESS

공식홈페이지 | www.orientalexpress.org

myspace.com | myspace.com/orientalexpressband

팬 카페 | club.cyworld.com/orientalexpress

E-mail & Phone | orientalexpress@seoulistarts.ac.kr / 0505-676-6767

홍보&기획 담당자(권지민) aileen.kwon@gmail.com / 010-4161-9489

[412-8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1-25, B1

ORIENTAL
EXPRESS

| KOREAN |



Oriental Express

오리엔탈 익스프레스(Oriental Express)는 국악과 재즈, 그리고 뮤직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퓨전음악그룹이다. 그룹의 리더이자 작곡 및 키보드연주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준(서울예술대학 교수), 드럼연주자 김현중(여주대학 교수), 베이스연주자 김현모를 중심으로 2004년 결성되었으며 2005년 가야금연주자 박경소 그리고 해금연주자 천지윤의 영입으로 현재의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다.

2006년에 발매된 데뷔 앨범 <To The West>, 2007년의 2집 <Cruising Together> 그리고 2008년의 3집 <Vision of the Road>, 세 장의 앨범을 통하여 발라드에서부터 재즈, 락(Rock), 라틴, 펑크, 디스코, 일렉트로니카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리듬에 한국적인 멜로디를 결합시켜 독특하고 폭넓게 그들만의 음악을 추구하여 왔으며, 공연뿐 아니라 공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자해금과 전자가야금, i장구 등을 비롯하여 국악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 등도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센서와 인터랙티브 실시간 비디오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악기와 서양의 현대악기가 함께 하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음악은 "이것이 국악이다." 혹은 "이것이 재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어울림의 정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이 바로 이들이 음악이다.

ORIENTAL EXPRESS



Oriental Express

1. Oriental Express – 새로운 음악, 새로운 장르의 지향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음악은 가야금과 해금의 주멜로디에 피아노 선율과 드럼/베이스의 리듬이 어울려 음악적인 다양성을 추구해 왔다. 각각의 영향력 있는, 서로 다른 악기가 어우러져 하나의 새로운 음악스타일을 탄생시켰다.

2. Oriental Express Technologies – 끊임없는 새로운 사운드에 대한 열정

-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만의 국악기 사운드 개발
- 전자 가야금, 전자 해금, i창고, 슈퍼 대고(스크린대고) 등 전자 국악기의 개발
- 국악기 VSTi 플러그인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 국악기 컨트롤러 등의 주변기기 개발

3. Oriental Express music library – 다양한 음악콘텐츠를 위한 도전

- 한스타일 퓨전 국악 음원 라이브러리 개발 (문화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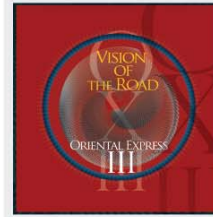
To The West (2006)

1. **Somewhere** : Oriental Express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Opening Instrumental.
2. **Oriental Express** : Oriental Express를 타면서 듣기에 편안한 곡으로 계속 전진하는 느낌의 스무스 재즈곡.
3. **June** : 해금 독주가 돋보이는 퓨전 펑크곡.
4. **Summer Night** : 여행 중 느낀 여름밤의 이야기.
5. **Softly** : 자정기와 같이 감미롭게 들려주는 가야금 연주곡.
6. **Bossa** : 우리 가락과 라틴 리듬이 조화를 이루는 보사노바풍의 연주곡.
7. **November** : 하지만 우리의 여행은 계속 된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화성진행의 연주곡.
8. **Providence** : 북방으로 향하는 우리 민족의 기상. 힘차게 달리는 듯한 연주곡.
9. **Cyberia** : 강렬한 베이스 기타 연주로 시작하는 펑크 리듬의 연주곡.



Cruising Together (2007)

1. **Cruising Together** : 여객선을 타고 함께 연주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청량함을 표현한 바닷바람과 같은 미디움 템포의 스무스 재즈 곡.
2. **Heart Beat** : 심장의 뛰는 소리처럼 마음을 들뜨게 하는 모던 디스코 리듬의 곡.
3. **Last Minute** :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체험하는, 마지막 남은 1분 때 문에 조바심을 내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긴장감 있는 퓨전 곡.
4. **One Night In Busan** : 리더인 최영준이 어린 시절의 부산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과, 성인이 되어 다시 부산에 방문했을 때 느꼈던 교차 되는 감정을 표현한 발라드 곡.
5. **Return To Paris** : 언제인가 떠났던 프랑스 파리 여행을 회상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스윙 리듬에 담은 곡.



Vision of the Road (2008)

6. **Some Oriental Funk** : 자유로운 펑크 리듬과 해학적인 멜로디와 즉흥 연주로, 듣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곡.
7. **Monsoon** : 끝없이 내리는 장맛비 속에서 느끼는 센터멘털함을 담은 미디움 템포의 곡.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공연 때마다 따라다녔던 빗방울을 소재로 한 곡이다.
8. **Jumping Without Moving** : 몸이 공중에 뜬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 주는 빠른 템포의 퓨전 록 넘버.
9. **Lonely Station** : 인적이 드문 간이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풍경과, 열차가 도착하고 나서 갑자기 분주해진 모습과, 사람들이 떠난 후 적막해진 간이역의 표정을 담은 곡.
10. **Please Don't** : 느릿느릿하며 동양적인 선율의 베이스 솔로를 메인 테마로 하여 차분하게 흘러가는 R&B 풍의 발라드 곡.
11. **Recurrence** :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현상, 만남과 헤어짐 등이 회귀되는 경험을 해금 멜로디와 스무스 재즈 리듬으로 표현한 곡.
12. **Yellow Dust** :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인 황사를 소재로 한 곡으로, 발원지로부터 우리나라까지 흘러오는 황사의 움직임을 시각화 하였다.
13. **Summer Vacation** : 경쾌한 타악기 연주와 삼바 리듬으로 여름의 태양과 그 아래에서 만끽하는 여유를 표현한 곡.

1. **Vision of the Road** : 지난 1집과 2집을 통해 꾸준히 선보여 왔던 오리엔탈 익스프레스가 추구하는 연주여행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취지의 평기한 느낌의 곡.
2. **Night Flight** : 어느 날 밤, 문득 탐승한 비행기 안에서 떠오르는 여러 생각들을 차분하게 표현해 나간 스무스 재즈 곡.
3. **Anabolic** :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오랜 기간동안의 연주활동은 서로간의 동화 작용(anabolic)이 없이는 지속될 수 없었다. 서로의 어우러짐을 미디움 템포의 스무스 재즈로 표현한 곡.
4. **One Day Trip** :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를 단 하루만이라도 버리고 출가분하게 여행을 떠나면서 느끼는 들뜬 분위기를 디스코 리듬으로 표현한 곡.
5. **Morning Coffee** : 이른 아침, 몸은 아직 잠에서 덜 깨어 있지만 모닝 커피와 함께 하루 일과를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일렉트로니카 스타일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한 곡.
6. **New Romance** : 달콤한 만남이 있다면 쓰디쓴 이별도 있기 마련, 힘들고 아픈 사랑의 기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는 기쁨을 표현한 발라드 곡.
7. **Sunshine Bay** : 태양이 내려찍는 해변에서 각태일과 함께 청량한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는 미디움 템포의 곡.
8. **V** : V는 Variation의 V일수도 있고, Victory의 V일 수도 있다. V라는 한 글자가 표현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일렉트로니카 스타일로 표현한 곡.
9. **Good Morning** : 지금은 아침, 이제 일어나야 하지만 잠에서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몽롱한 느낌 속에서 꿈결처럼 들려오는 멜로디를 표현한 곡.
10. **Morning Coffee (Complete Session)** : 5번 트랙 Morning Coffee의 스튜디오 전체 녹음본전. 중반부에서 각각의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카오스(Chaos)를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

아티스트



김현중 [드럼]

서강대 화공과 졸업
미국 Musicians Institute(타악기, 레코딩)졸업
상명대 음악대학원 졸업
現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교수
서울 재즈아카데미 교육과장 역임
영화 '악숙', '미술관 옆 동물원', '용가리' 등의 녹음세션
이정선, 이현우, 신촌블루스, 양준호, 한상원, 정원영 등과 공연 및 재즈클럽 활동
저서 "Rock Drums"



최영준 [피아노, 신디사이저]

Berklee College of Music BM
Brown University MA
Stanford CCRMA 수료
충남국악관현악단 위촉 작품 발표, 썬지 사운드아트 101전
미디어시티2002, 토탈미술관 등에서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現 서울예술대학 교수
前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컴퓨터 음악 전공 초빙교수
서세원, 손숙, 이재용 등의 MBC TV 토크쇼 밴드 및 드라마 음악감독
저서 <버클리스타일의 재즈피아노 교본>, <사운드디자인과 레코딩>



김현모 [베이스 기타]

한양대학교 졸업
레코딩 뮤지션, 대중음악 작/편곡자, UCC 아티스트
"사일런트아이" 및 "무당" 베이스리스트, "World" 1집, 유주형(前 김경호밴드
기타리스트) 1집, 강지운 1집, 조성아 1집, CCM앨범"Miracle"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곡그룹 [Y-Star] 베이스 세션
2008년 일본 오사카 하마마츠 록 콘서트 참가
2009년 일본 Nico Rock Nagoya 2009 참가
동영상 음악강의 사이트 '뮤직필드' 베이스, '뮤직스쿨 타' 베이스 강사



박경소 [가야금]

국립국악학교, 국악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예술전문사 과정 졸업
가야금 앙상블 아우라 멤버
서울남산국악당 주최 가야금3인전, 독주회
<황진이>, <선덕여왕> 등 영화, 뮤지컬 및 드라마 OST 참여 및 국악 코디네이팅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청운대학교, 여주대학 출강

ORIENTAL
EXPRESS